

선과 면의 해석적 조형미를 활용한 현대금속공예 연구

고승근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A study of modern metal craft using analytical formative beauty of line and surface

Seung Geun, Ko
Dept. Jewelry and Desig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금속공예 분야에서 점차 쇠퇴되는 대공작품의 예술적 미적 가치를 연구하기 위해 시작된 본 연구는 디자인 요소인 점, 선, 면, 형을 중심으로 한 조형 표현방법으로 선과 면을 선정하고 이를 금속조형으로 시각화 하였다. 선형연구를 통해 알아본 선과 면의 미적 해석은 생명력 있는 반복적 아름다움으로 정의 되었는데 연구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반복적이면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조형 작품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 결과 선과 면이 규칙적 반복이 아닌 자연스럽게 점진되는 변화를 통해 어려운 기법이나 고도 기술의 제작 방법 없이도 선과 면의 단순한 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탐구의 대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쇠퇴해가는 금속조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선과 면의 활용이 조형요소로서 매우 다양한 미적표현 방법으로 응용 될 수 있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금속조형, 선, 면, 조형미, 공예, 미학

Abstract This study was started to study the artistic aesthetic value of the antique artwork which is gradually declining in the field of metal crafts.

The aesthetic interpretation of the lines and faces that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previous researches has been defined as a vitality and repetitive beauty. The researchers here have tried to express the formative works which can be repeated and chan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object of inquiry which can express the aesthetic beauty felt in the simple change of the line and the face is possible without the advanced technique of the difficult technique or the molding method through the natural and gradual change of the line and the face rather than the regular repetit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future lines and surfaces could be utilized as a variety of aesthetic expression methods as molding elements

Key Words : Metal craft, Line, Plane, Molding, Craft, Aesthetics

1. 서론

1.1 연구 목적

금속공예는 금속을 소재로 만들어진 모든 조형물을 의미한다. 현대금속공예는 크게 대공과 세공으로 나뉘는데 대공은 동, 철, 구리 등의 금속제를 사용하여 조형물,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고 세공은 백금, 금, 은과 보석제를 사용한 장신구를 의미한다. 세공분야는 주로 장신구분야로 발전되어 일반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대중성 있는 작품연구, 디자인 연구, 재료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공 분야는 산업적 활용도가 낮고 오랜 가공시간과 대량생산, 금속제품 관리의 불편함, 플라스틱, 유리 등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Seung-geun, Ko (kogeun@wku.ac.kr)

Received November 20,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22,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의 타재료 제품의 발전 및 대중화 등의 이유로 세공분야보다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금속공예는 옛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고급 예술 산업으로서 선조들로부터 전해오는 기술력과 예술적, 조형적 발전가치가 있으며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의 한 분야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대에 들어서 소외되고 있는 금속조형 연구를 통해 금속조형의 아름다움과 연구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적 아름다움을 금속조형으로 나타냄으로써 현대조형물의 예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향후 금속공예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제시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금속공예의 예술적 미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미적 가치의 기준이 되는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디자인 요소는 점, 선, 면, 형 등으로 정의 되는데 전체적인 형태를 형으로 정의 하고 점은 선의 시작점으로, 선과 면은 조형 요소로서 해석하여 형태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금속조형의 조형 방법으로 선정된 선과 면의 미학적 개념을 정의하고 조형적으로 한국에서 미학적으로 선과 면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고찰한다.

둘째, 고찰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 분야에서 선과 면의 미학적 개념을 조형적으로 활용한 선행연구사례를 통해 미학적 해석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현대금속조형의 선과 면의 조형적 해석을 통해 금속조형으로 시각화 한다.

넷째, 완성된 연구 작품을 작품설명으로 통해 미학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 가치에 대해 결론 짓고, 향후 금속조형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2. 본론

2.1 선과 면의 미학 개념 및 정의

한국 미학의 시작은 1980년대 국학연구와 더불어 미술, 음악, 건축 등 예술 작품에 표출되고 있는 조형적 특징을 통해 미의식의 문제를 고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한국 미학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미술사학 분야에서였다. 선학들이 밝혀낸 한국미의 본질과 미의식의 학문적 규명의 자취를 더듬어 종합해 보면, 아

나기 무네요시는 조선의 예술, 특히 그 중의 조형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애정에 굽주린 마음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답고 길고 길게 굽는 조선의 선을 실로 연연하게 호소하는 마음, 그 자체다. 그들의 원한도, 기도도, 희구도, 눈물도 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처럼 길게 늘어진다. 불상, 도자기 등을 생각하거나 볼 때 우리는 이 조선의 선에 접하지 않는 때가 없다. 강대하고 태연한 중국의 형의 미 앞에서 ‘조선의 선의 미 그것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논하면서 전통 예술품의 선에 담긴 의미에 대해 논하였다[1]. 야나기 무네요시의 예술이론은 한국 최초 미학자인 고유섭으로 이어졌다. 그는 서구미학을 최초로 수용했으며 그것을 기초로 한국미학의 바탕을 일구어 놓았다. 고유섭은 ‘구수한 큰 맛’으로 한국예술의 특징을 규정하고 이 말 속에는 직선이 같은 합리적인 미감 보다는 곡선이 같은 비합리성이 은근히 암시되었음을 보게 된다. 세부적으로 곡선은 직선과 점, 양자를 연결하는 것으로써 결국 그 과정에서 원으로 향하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둥글게 이루어 내는 아름다움을 가진다고 하겠다. ‘구수한 큰 맛’이란 표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 미술의 조형적인 특징인 곡선이나 원에 있다. 즉 고유섭은 ‘비균제성의 멋’에 대하여 논하면서 음악적 리듬감에 기인한 선과 면의 아름다움에 관해 논하고 있다[2].

2.1.1 선의 정의 및 미학적 해석

예술에서 선이란 예술작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선, 또는 창조 작품 속 주제가 되는 전체적인 흐름, 재료나 색채를 연결시키거나 또는 배치에 의해 생기는 상상의 모든 선을 가리킨다[3].

기하학적 시선의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며, 이는 점이 움직여나간 전체적인 흔적이며, 점이 형성하여 만들어진 소산이다. 선에 대한 보편적 예술적 정의는 하나의 움직이는 점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선 특유의 리드미컬한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

선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하며, 통과하는 부분을 분할하고 공간이 분할되어 전체적인 형태의 하나의 형상을 제공한다. 또한 선은 연속으로 둘 이상의 점들을 연결하거나 전체적인 형, 또는 실루엣을 한정할 수 있으며, 때로는 감성적 느낌이나 성격을 전한다. 선은 보통 특정한 위치에 자신을 명료하게 확인시키는 명확성을 지니며, 감성이나 분위기에 대한 느낌을 전한다[5].

선은 어떤 모양과공간 사이에서, 구획되어진 윤곽선으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선은 자연속의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며 외부 공간과의 구분되는 지점에서 지각 될 수 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선은 점의 연장이며 점과 같은 현상이 반복해서 지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 산의 능선, 수 천년의 시간 동안 벨(Bayle)은 예술철학의 미 가치가 정서,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의(有意義)형식 선, 공간 요소의 조화 계에 있으며 모든 재 요소를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형식의 미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고 하다. 라이(Fry)도 벨(Bayle)의 형식주의 학설을 발전시켜 조형표현의 본질을 형식, 즉 질서와 변화를 통해 결합하는 선의 구성으로 용인(容忍) 한다고 했다. 선에 의한 기하학 디자인은 단순하고 간결한 경향을 띄는 형태로 나타나며 지배인 부분과 종속인 부분의 조형원리에 입각한 예술 체계로 표된다. “자연의 제 양상(樣相)은 변화하지만 리얼리티는 불변 그로 실재한다.”고 한 이 리얼리티야말로 순수한 조형 질서를 묘사한 설명이다. 수많은 형태에서 선은 형태를 이루는 기본 요소로서 보편적인 형태로 정의되며 공간은 기본 원리 구성을 통해 형성된다[6].

선에 시간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바위들의 윤곽선은 하나의 기하학적인 선이며, 또한 다양한 문화와 시간 속에서 숭고한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고유한 어떤 경험이나 감성과 느낌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조형적 형상일 수 있다[7].

2.1.2 면의 정의 및 미학적 해석

면은 형을 만드는 형상요소들 가운데 에 보이는 기본 상의 하나이다. 면은 원래의 형태를 벗어나 독립되면 면 이상의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환원될 수 없으며 다양한 경계선의 물질을 거부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소만을 지닌다. 우리가 면을 단순히 윤곽으로만 생각한다면 면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면은 불특정 어떤 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넓어져 전체적인 형태를 스스로 형성하지 않는 사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면의 본질이 보인다. 따라서 면을 문장으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면 크기는 하나의 형상요소이고 더 나아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단계에 의해 나타난다. 면은 작품의 내용을 수용하는 물질인 평면을 뜻하며 의 획, 선의 이동이나 폭의 확산 등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1차원인 선

과는 다른 넓이를 갖게 되는 2차원의 세계이다. 면은 선과에서 느낄 수 없던 원근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색채 효과에 의해 입체감이나 공간감도 표한다. 면은 주로 선에 의해 정해진 공간에서 독립된 요소로서 실현되기 때문에 선의 성격에 의하여 면의 성격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면은 색채나 구조상 차이를 갖지 않는 무한의 상태이며 평면인 상태로 있을 때 가장 순수하게 실현된다. 직선은 면에 의해 공간을 바꿀 수 있으며 분할한다. 이것이 면의 본질이다[8].

평면은 구성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능성을 갖는데 하나는 형태를 둘러싸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형태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즉, 면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선의 흐름과 비교되어지는 면의 흐름이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1866~1944)는 모든 면의 구성은 단독으로 실현되며 그 자체의 존재와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성요소 자체의 개념으로 구분 지었다. 그는 구성을 평면과 공간으로 표현되는 의(狹義)의 형태와 색채와 의의 형태와의 계인 의(廣義)의 형태로 정의했다. 입체의 표현 작가인 피카소(Pablo Picasso:1881~1973)가 1907년도에 제작한 작품 ‘아비뇰의 처녀들’은 인물이 기하학 단면으로 표현되고 공간 역시 더 배경으로서 부차인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로서 기하학인 면들로 분해되어 존재하다. 피카소와 라크(Georges Braque:1882~1963)는 형태를 무질서하게 해체시켜 면으로서 공간에 재배치하였으며 이때 오체들은 자연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상인 추상 표현 요소로 의 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9].

앞의 사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선, 면의 경계를 두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선, 면은 보이는 것을 시각으로 인식하고 해석 될 때 이해되며 이들이 바로 조형요소의 기본형태소가 된다. 선, 면이 다른 조형요소들과 함께 상호 의존인 계로서 실재(Reality)를 어떻게 조형으로 화면에 구성할 것인가에 한 연구는 무한하다.

2.2 선형 연구 조사

2.2.1 선과 면의 조형적 활용

이윤희[10]는 서구적 논리로 구체화 되지 않았던 한국 영화미학을 한국미학이라는 한국적 공간 내에서 해석함으로써 한국영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한국미학의 틀 안에서 선의 미학을 분석하였다. 한국미학 가운데 선의 미학이란 조형적 측면을 중

심으로 하여 그 개념을 각각 관조적 선, 생명력, 비평미학을 통해 한국영화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선의 미학을 논하였다. 한국영화와 미학은 다각도로 접근하여 정리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만다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분석하여 한국영화미학을 '선의 미학'이란 한 개념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렵지만 한국미학과 공간의식에 관한 여러 논의들로 그 의미들을 정리함으로써 이를 과정 속에서 본질적 한국적인 미의식에 다가갈 수 있는 조형적 선의 이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용민[11]은 그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하는 예술을 패션분야로 정의하고 패션은 인체를 소재로 하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재료와 인간이 구성하는 공간으로 표현하고자 디자인요소에서 선, 색채, 재질의 활용하여 선의 율동적인 흐름을 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구조적이고 변화 있고 생명력 있는 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선의 이미지를 복식 조형 예술 표현의 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었으며, 장식적 고정적요소로서 선을 통해 움직임의 다이나믹하게 표현 할 수 있는 선의 율동적 아름다움의 표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오현호[12]는 인간의 능력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창의적 사고이며 창의적 사고는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디자인교육에 개인의 창의성과 발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창조적 사고를 위한 발상교육으로 점, 선, 면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제안을 위해 고등학교 디자인계열의 발상교육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점, 선, 면을 이용한 발상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과 면은 창조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이미지는 1차적으로 시각의 지각 결과로 사람이 생각하는 감성적 사고에 생기는 2차적인 감정으로 해석하고 아이디어 단계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데이터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체화하여 점, 선, 면을 이용하여 형성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이미지 창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점, 선, 면을 구체적으로 시각화 하는 시각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발상능력 확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

김태연[13]은 섬유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독창적인 자체 디자인과 고유 상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조형요소로서 점, 선, 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상징성과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점, 선, 면에 의한 디자인은 탐구

의 대상으로서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가치와 매력을 기니며 다가오는 미래 트렌드에 부합되게 새롭게 계속해서 재창조되어 인간적인 미니멀을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자이너는 선과 점의 지속적인 반복으로 시각적 통일감을 형성하였으며 하이테크 기술과 함께 한다면 조형적 감각과 함께 인간적인 감성 표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다[14,15].

2.3 선과 면을 활용한 금속조형 연구

연구자는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선과 면은 조형적요소로 활용되었을 때, 변화하며 변화를 통해 생명력 있고 창조적 발상의 원천이 되는 상징적 요소로 응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얻어진 선과 면의 미적 해석을 바탕으로 점은 모든 형태의 시작점, 선과 면은 미적 표현방법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선과 면의 표현방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단순한 기본 형태의 금속조형물 디자인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금속조형물은 다음과 같다.

2.3.1 개요

[Fig. 1]의 금속조형물은 전체적인 형태는 항아리 형태로서 단순하면서도 편안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칭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전체적인 곡선형태는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선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항아리 윗부분에 선을 먼처럼 넓게 표현하여 시작점을 정리해주고 문양처럼 들어간 선의 형태들은 인위적이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 신주를 순간적으로 녹여서 자연스럽게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문양처럼 나타내어 율동감과 생명력, 문양의 형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 할 수 있도록 표현하



[Fig. 1] Silence

였다. 처음 시작되는 곡선적 울동감은 점차 직선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큰 면의 형태의 원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여 비대칭과 반복, 울동감, 등의 미적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금속조형물을 나타내었다. 적동을 레이징 기법으로 제작 하였고 선의 흐름은 신주를 순간적으로 떨어트려 땀의 역할과 함께 선의 흐름으로 제작하였다.

2.4.2 퍼짐

[Fig. 2] 작품은 첫 번째 조형 작품과는 달리 전체적인 형태는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대칭 속에서 나타나는 긴장감은 금속표면의 퍼지는 문양들을 통해 중화된다. 윗부분은 금속각재로 전을 대어 깔끔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주었으며, 표면은 황동과 적동의 색감차로 퍼지는 문양이 자연스러운 선으로 표현하였다. 마치 지문처럼 점차 모아지고 퍼지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시각적으로 면과 형을 느껴 재미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대칭되는 전체적인 형태와는 대조되는 문양표현으로 시각적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금속조형물이다. 적동, 황동, 신주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Fig. 2] Spread

3. 결론

선과 면을 활용하여 조형적 아름다움의 표현 방법으로 미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금속조형물 연구를 위해 디자인요소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여 금속조형물로 나타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과 면이 규칙적 반복이 아닌 자연스럽고 점진되는 변화를 통해 어려운 기법이나 조형방법의 고도기술 없이도 선과 면의 단순한 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적 아

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탐구의 대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금속조형의 전체적인 형태는 대칭과 비대칭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하여 시각적 다양성을 주었고 표면 처리를 질감과 색채의 다양성으로 표현함으로써 단순함 속에서 느껴지는 울동감과 다양성을 표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선과 면의 활용이 조형적인 표현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는 디자인 요소 중에서 선과 면 만을 활용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아름다움이나 다양한 금속조형 기법을 작품 속에서 느낄 수는 없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금속조형에 있어 기법적, 미적으로 모두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금속조형연구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Yanagi, "Chosun and its art, tamgudang, p.30, 1976.
- [2] Y. H. Lee, "A Study on the Line Aesthetic in the Korean Films' Aesthetics : With Focus on the Films of <Mandala> and <Why did Dalma Go to the East>" ,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10-11, 1999.
- [3] K. S. Lee, "What is art", seoul iljisa, p.34, 1975.
- [4] Y. M. Lee, "The Clothing Design Study for Application of Line's Rhythmical Beauty",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p.6, 1996.
- [5]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p.43, 1987.
- [6] Bacchus, "aesthe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2, 1979.
- [7] Y. K. Kim, "Molding ceremony of Koreans", changjisa, p.364, 1994.
- [8] T. Y. Kim, "A study on interior textile design by a dot, a line and a plane : using the traits of chenji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8 2005.
- [9] Y. Jo, J. Y. Kim, "Form Perception and Construction Principle for Basic Design", changjisa, p.32, 1999.
- [10] Y. H. Lee, "A Study on the Line Aesthetic in the Korean Films' Aesthetics : With Focus on the Films of <Mandala> and <Why did Dalma Go to the East>" ,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69-70, 1999.
- [11] Y. M. Lee, "The Clothing Design Study for Application of Line's Rhythmical Beauty",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96-97, 1996.

- [12] H. H Oh, "A study on Education of Conception Using Points, Lines and Planes",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94-96, 2005.
- [13] S. M. Kim, "Craft industry, craft culture products, culture, status and Conditions, trade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0, pp.689-694, 2013.
- [14] S. G. Ko, "A Study on Metal Molding Using Line Transformation and Repetition - Using phosphor bronze wi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355-360, 2017.
- [15] Y. L. Yu, "A Study on the Tableware Design using Geometric Patter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8, pp.475-480, 2014.

고 승 근(Ko, Seung Geun)

[정회원]



- 1984년 2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과 (미술학 석사)
- 2006년 2월 : 동신대학교 보석공학과 (공학박사)
- 1991년 2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금속공예, 장신구, 디자인, 보석학
- E-Mail : kogeun@wkg.ac.kr